

성전숙청을 그 계기로 내세운다.¹⁵⁾ 마르코는 그것에 한정하지 않고 예수가 안식일에 한 손 오그라진 사람의 손을 펴게 한 것을 보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당이 야합해서 그를 처형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한다(마르 3, 6). 이것은 마태오복음에서나 루가복음에서도 그대로 전승된다(루가 6, 11; 마태 12, 14). 이에 대해 요한은 예수가 라자로를 살린 사건을 예수가 죽음을 당하는 계기로 삼는다(요한 11, 53).

예수의 수난의 맥락

예수의 수난은 갈릴래아에서의 그의 민중운동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넷째 마당 ‘갈릴래아로’에서 예수의 공생애 출발의 계기가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었을 때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거기에 이미 예수의 수난과 죽음의 각오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은 갈릴래아 예수에게서 일어날 민중운동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갈릴래아 민중의 처지는 다음과 같은 네 겹의 억압 밑에 있었다. 첫째는 점령세력인 로마제국의 군사적 횡포와 경제적 착취, 둘째는 헤로데 안티파스의 폭정, 셋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 사람들의 차별주의, 특히 성전제도에 의한 경제적 압박 그리고 도시의 부재지주들에 의한 토지독점과 그에 따른 노동력 착취이다.¹⁶⁾ 이러한 큰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갈릴래아의 민중들을 억누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철저히 절망하여 체념 속에서 죽어가거나

서 전승사』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수를 세례자 요한과 같은 궤도에서 본다. E. Fuchs, O. Michel, O. Cullmann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15) 마르 11, 18; 루가 19, 47. 단 마태오에는 이런 모티프가 없다.

16) ‘예수의 시대상’ ‘체제와의 충돌’ 마당을 참조.

아니면 목숨을 내걸고 봉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마당에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선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것은 이미 다섯째 마당 ‘하느님 나라’에서 언급했지만,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혁명의 때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전제에서 저들에게는 도탄에서 구해줄 메시아 대망이 충일해 있었음에 틀림없다. 예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는 요구는(마르 8, 11) 반드시 적대자의 악의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추앙하는 민중의 열기를 반영하고 있으며,¹⁷⁾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병자들의 절규는(마르 11, 47) 예수에 대한 유다적 메시아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옥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를 통해 예수가 오실 그이(ὁ ἐρχόμενος, 마태 11, 2)냐고 물은 것은 그에 대한 민중의 메시아적 기대를 재확인하려는 것이며, 예루살렘 입성 때 민중의 환호는(마르 11, 10) 민중의 메시아 대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위에서 예거한 것들의 역사성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런 것들은 당시 민중들이 예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만큼은 그 역사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¹⁸⁾ 그들의 메시아 열망은 예수에게만 집중됐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메시아운동

17) 여기서 말하는 ‘표징’(σημείον)은 힘(δύναμις)의 과시와는 다르다. 그것은 종말성의 표징으로서(마르 13, 4·13, 22) 우주적 변이나 하늘로부터 직접 나타난다. 루가 21, 11·25 등도 참조. 이러한 표상은 특히 묵시문학에 자주 나타난다(마르 13, 24~25; 묵시 12, 1~3·15, 1). 그러므로 이것은 민중이 예수에게서 결정적인 종말사건을 기대하였음을 시사한다(J. Gnilka, *Mk*, I, S. 306f./한역본 389면 이하.).

18) R. A. Horsley, “Popular Messianic Movements around the Time of Jesus,” *CBQ*, 46, 1984, p. 458f./한국신학연구소 편역, 『예수시대의 민중운동』, 한국신학연구소, 1990, 96~131면.

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표출되었다.¹⁹⁾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굶주리고 생활에 지쳤으며 또 현실을 증오하며 그것에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치던 민중들은 예수를 수난으로 몰아가는 충분한 압력이 되고 남았을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염원이 구체화되어 행동대로 출현한 것이 젤롯당이다. 젤롯당의 거점은 갈릴래아였기 때문에 비록 복음서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이미 지적했다.

여기서 젤롯당운동을 다시 회상할 필요가 있다. 젤롯당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한계에 구구한 견해가 있다. 주전 66년 유다 전쟁을 일으킨 때에 국한하려는 견해, 그중에서도 예루살렘 사제가 중심이 된 운동과는 대조적으로 갈릴래아를 거점으로 하면서 예루살렘에 진입한 시카리운동과도 구분하려는 견해 등이 있으나²⁰⁾ 그것은 불투명한 요세푸스의 용어 사용에 지나치게 의존한 데서 온 결과이다.²¹⁾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종교적·민족적 저항을 폭력에 호소한 운동의 맥에서 그 운동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에 의한 봉기가 본격화된 것은 로마의 시리아 주재 총독인 퀴리노(Quirinius)가 세금징수를 위해 유다 지방 호구조사를 실시할 때였다(주후 6년). 이때 선두에 나선 자가 갈릴래아 유다(Judas)이다. 요세푸스는 유다가 이때 사두가이, 바리사이 그리고 에세네파와 나란히 제4철학파²²⁾를 형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운동의 맥은 쥘

19) 넷째 마당 ‘갈릴래아로’를 참조.

20) M. Smith, “Zealots and Sicarii. Their Origin and Relation,” *HThR*, 64, 1971; S. Zeitlin, “Zealots and Sicarii,” *TBL*, 81, 1962.

21) M. Hengel, *Die Zeloten*, S. 412.

22) ‘제4철학파’는 갈릴래아 사람 유다가 창시했다고 하는데, 이 철학파가 강조한 것은 하느님의 ‘배타적 주권’과 ‘이스라엘의 자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썬 이전으로 소급된다. 이미 대로마 저항 민중운동이 계속되어왔는데, 그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조직화된 것은 하스몬왕가의 낙조기에 접어들어 안티파터가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다 지방의 집정관이 되고, 그의 아들들을 유다와 갈릴래아 지방의 군사령관으로 군림시킨 주전 7년 이후부터이다. 유다 민중은 이두메제인 이들이 이스라엘민에게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중운동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정복자에 대한 지지자로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는 그 맥락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민중운동은 이미 친로마파인 예루살렘의 어용사가의 눈에는 무시된 운동이었다. 그러나 그 저항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는 것은 당시 민중의 대표인 히스키아가 예루살렘 지배층에 잘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젊은 헤로데가 이 민중의 게릴라부대를 토벌했다는 사실만 전하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생포하여 재판도 없이 처형했는데 그중에 에제키아도 포함되었다고 한다.²³⁾ 이에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의원들이 아직 명맥만 유지하는 히르카누스 2세에게 헤로데의 만행을 꾸짖어 재판에 회부할 것을 강요했으나 오히려 헤로데가 군사를 이끌고 진입하여 시위함으로써 겁에 질려 산헤드린 의원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저항운동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입증한다. 요세푸

신인협력'이었다. 제4철학파의 주장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M. Hengel, *Die Zeloten*, S. 77~150; R. A. Horsley, "The Sicarii. Ancient Jewish Terrorists," *The Journal of Religion*, 59, 1979, p. 442f./한역본 『예수시대의 민중운동』, 132~168면). 요세푸스는 시카리가 제4철학파와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Jos., *Bell.*, 2, 253).

23) 둘째 마당 '예수의 시대상'을 참조.

스는 에제키아를 ‘비적 두목’이라고 함으로써 그 봉기정신을 말살하려고 한다.²⁴⁾ 그러나 유다가 바로 그의 아들이며 켈롯당을 그의 후손들이 지휘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때 팔레스틴에서 탈출해야 했던 헤로데가 로마에서 왕권을 수임 받고 다시 진입하자 갈릴래아 지방에 대한 소탕부터 시작했다는(주전 39~38년) 것은 민중저항운동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그 어느 곳보다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는 많은 살육을 감행했으나 알벨라(Arbela) 동굴을 요새로 한 이른바 강도들은 소탕할 수 없었다고 한다.²⁵⁾ 사실상 헤로데 1세 이후 알려진 저항은 이것뿐이다. 헤로데의 잔인성과 교활한 정치력은 겉으로 보기에 저항운동을 둔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갈릴래아의 ‘강도’들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헤로데가 죽자(주전 4년) 저항운동은 곧 표면화되었다. 이에 헤로데의 뒤를 이은 아르켈라오가 소탕전을 벌여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나 결정타를 주지 못하므로 시리아 주재 로마총독 바루스(Varus)가 지원군을 끌고 와 살육했다. 요세푸스는 그가 2천 명이나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전한다.²⁶⁾ 그러나 그것으로 민중저항운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위에서 본 바대로 히스키아의 아들 유다, 노예 출신 시몬, 목동 출신 아트룽게스 등의 지휘 아래 민중운동이 계속되다가 모두 장엄한 최후를 마쳤다.²⁷⁾

그중 유다는 ‘갈릴래아인’이라는 칭호가 말해주듯 갈릴래아에서 계속 세력을 규합했으며, 마침내 주후 6년의 호구조사를 계기로 표

24) Jos., *Bell.*, 1, 204.

25) Jos., *Bell.*, 1, 304.

26) Jos., *Bell.*, 2, 73ff.

27) 넷째 마당 ‘갈릴래아로’를 참조.

면에 나섰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에제키아를 단순히 ‘비적의 두목’이라 한 데 비해 유다가 조직한 젤롯당은 제4철학파라 하고 그는 철인(*σοφιστής*)이라고 한다.²⁸⁾ 이로써 유다에 의해 시작된 젤롯당은 단순한 무장폭도가 아닌, 이념으로 무장한 저항단체임을 시사한다. 그것은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나헴(Menahem)에게도 같은 칭호를 쓴 데서 확실해진다.²⁹⁾

유다는 바리사이 좌파인 사독(Zaduk)과 더불어 쫓기했다.³⁰⁾ 그는 쫓기할 때 “로마에 세금을 내고 하느님 외의 어떤 죽어없어질 것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치욕”³¹⁾이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이것은 하시딤 이래의 뚜렷한 신조로서 하느님 외의 어떤 주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 바탕에는 민족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³²⁾ 이 같은 입장은 헤로데 가에 대한 저항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유다의 그 다음 활동이나 최후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는다. 단지 사도행전에서 가물리엘의 언급을 통해 갈릴래아 유다가 죽으니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고 전해지는데(사도 5, 37),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은 올바른 보도가 아니다. 비록 헤로데왕 당시에 그의 잔인하고 교활한 통치 아래 큰 봉기는 없었으나 계속 저항운동이 끊이지 않았으

28) Jos., *Bell.*, 2, 118 · 433.

29) Jos., *Bell.*, 2, 445.

30) Jos., *Ant.*, 18, 9. 바리사이 좌파는 바리사이파 가운데 급진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갈릴래아 사람 유다의 사상에 가까운 주장을 폈다. 그레츠는 삼마이파가 유다에 의해 창건된 젤롯당과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었다고 추측한다(H. Graetz, *Geschichte der Juden*, Leipzig, 1905⁵, Bd. III, S. 256f).

31) Jos., *Bell.*, 7, 253~256; *Ant.*, 18, 3~10 · 23~25.

32) 하느님의 절대주권과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들에게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었다.

며, 갈릴래아 일대는 저항자들의 웅거지였다. 그러한 저력이 있었기에 헤로데왕 사후에 재빨리 봉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유다의 정신은 그의 자손에게 계승되어 총독 알렉산더(Tib. Alexander, 주후 45~48년) 때에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시몬이 봉기부대의 지휘자로서 처형되었으며,³³⁾ 그의 자손인 므나헴이 유다 전쟁 발발시에 지휘자로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했다.³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저 유명한 마사다 요새에서 그의 동료 전원과 장렬하게 집단자살함으로써 그의 절개를 과시한 엘르아잘(Eleazar, 주후 71년)도 유다의 손자였는데³⁵⁾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그 운동이 줄곧 계속되었다는 것과 유다 전쟁을 일으킨 주력부대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긴 투쟁사의 계보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켈롯당의 결사적 투쟁은 당시 갈릴래아 민중의 열망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지적한 대로 저들의 일차적인 적은 로마제국이다. 그것은 로마제국이 하느님의 주권을 침범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로마제국 자체보다는 예루살렘에서 군림하는 배신자들인 상류층에 집중되었다.³⁶⁾ 저들은 바로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하느님의 주권 수립운동을 무력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이 예수의 운동에 어떤 형태로든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33) Jos., *Ant.*, 20, 102.

34) Jos., *Bell.*, 2, 433ff.

35) Jos., *Bell.*, 7, 253.

36) 로마에 협력하고 대중착취에 앞장섰던 이들 상류층에 대한 공격은 시카리의 암살전술로 나타났다. 시카리에 의해 암살된 사람들 가운데는 대사제 요나단도 있었다(Jos., *Bell.*, 2, 256). 그런데 봉기가 진행되면서 시카리의 활동범위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그들은 지방의 토지에서 유다의 귀족들을 몰아냈고, 그들의 재산을 파괴했다(Jos., *Bell.*, 7, 254).

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 영향을 빼고는 예수 수난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의 민중운동

다음은 민중운동의 또 하나의 다른 측면으로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 대한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것으로 부각된다. 예수가 그들을 부른 장면들은 극히 민담적인 서술이어서 그 계기를 잘 알 수 없다. 어쩌면 저들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메시아운동에 가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요한복음은 저들의 일부가 세례자 요한파에 속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이미 저들이 사전에 내통하고 있었다는 인상도 주는데(요한 1, 35~51), 그것이 역사적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다. 혹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저들 중의 일부는 젤롯당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이들에게는 일정한 메시아상이 있었으며, 바로 그 상을 예수에게서 찾으려고 했으리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예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뛰어넘기 어려운 담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다적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를 그러한 이로 기대했다.³⁷⁾ 그것은 심판자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느님의 주권을 즉시 실현하는 힘과 승리의 상이다. 복음서에서는 저들의 맹목성과 무지에 대한 예수의 비판과 책망을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³⁸⁾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의 수난에 대해 예수운동 안에서 야기된 견해

37) S. G. F. Brandon, *a.a.O.*, S. 349.

38) 마르 8, 31·9, 5·9, 33·10, 35. 전승모체의 편향적 비판이 이것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